현대건강신문 프린트하기

프린트하기

# 신풍제약 '메디커튼', 2015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대통령상 수상

2015/12/01 15:13 입력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신풍제약(주)과 포스텍의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유착방지제 '메디커튼'이 지난 26~29일 코엑스에서 진행된 '2015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하였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주최한 이 날 행사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메디커튼주사"는 생체적합성도 되므로 생체적합성과 상처치유력이 우수한 '히알우론산(H.A)'과 항혈액응고 및 항염증 작용이 뛰어난 '하이드록시에틸스타치(HES)'를 복합하여 수술 후 유착방지용 주사제로 개발된 독창적 제품이다. 고점탄성 히알우론산에 의한 물리적 장벽(막) 형성 기능 뿐 만 아니라 유착 발생의 근간을 이루는 혈전 및 염증형성을 억제하여 탁월한 유착방지 효능을 나타내는 것이 다양한 임상시험으로 입증되었다.

메디커튼은 이러한 제품력을 바탕으로 지난 2012년 자궁경 수술 후 유착방지 허가를 받은 이후, 2013년에 복부(복강경) 수술과 척추수술에 대한 적응 증을 연이어 획득했다.

신풍제약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올해 1월 '갑상선 수술', 10월에는 '비/부비동 수술 후 유착감소 효과'에 대한 적응 증을 추가하여 유착방지제로서 가장 넓은 범위의 5개의 적응 증을 보유한 제품이 됐다. 이는 국내 유착방지제 가운데 가장 많은 3상 임상을 진행한 결과로 제품의 안전성과 임상적 효과가 뛰어남을 확인 받은 것이다.

한편, 메디커튼은 기술력에 대한 경쟁력과 독창성을 인정받아, 2009년 06월 식약처 지정 '신개발 의료기기'에 선정되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ealth@hnews.kr

[ 여혜숙 hsyeo@hnews.kr ]
여혜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믿을 수 있는 건강전문지, 현대건강신문(hnews.kr) – copyright ⓒ 현대건강신문.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